

■ 서울 청원고 무등기고교야구 우승



16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제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우승한 서울 청원고 선수들이 경남 마산고를 3-0으로 누르고 승리가 확정된 순간 일제히 환호하며 그라운드로 뛰어나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수·주 환상의 조화…재창단 8년만에 전국 정상

선발 박상옥 무실점 완투…마산에 3-0 승

1회 대회 결승서 좌절…14년만에 한풀어



결승전

학생야구의 진수를 보여준 결승전이었다. 파이팅과 '순수야구'에 대한 열정으로 뜰을 뚫친 고교 야구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파인플레이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선보이며 운동장을 가득 메운 응원단을 흥분시켰다.

'창'과 '방패'의 대결로 예상됐던 이날 경기는 마지막까지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팽팽한 대결로 손에 땀을 쥐게 했지만 청원고 '방패'의 승리를 끌냈다.

올 해 유난히 판정을 부리며 전국의 강호들을 고향 앞으로 돌아가게 했던 '무등기'는 마운드와 집중력에서 한 수위의 기량을 보인 서울 청원고의 품에 안겼다.

청원고는 16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공동 주최) 결승전에서 '경남의 야구 명문' 마산고를 3-0으로 꺾고 지난 2000년 12월 7일 재창단 후 8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청원고로서는 전신인 동대문상고가 제1회 무등기대회 때 결승전에서 광주일고에 패한 바 있어 14년 만에 우승의 힘을 푼셈이다.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전에서 준우승을 따내 광주와 인연을 맺으며 무등기 출전 사상 첫 대회 우승을 노렸던 마산고는 청원고 선발 박상옥(2년)을 공략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본사 김진영 사장(오른쪽)이 우승을 차지한 청원고 선수단에 우승기를 전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대회 단체·개인별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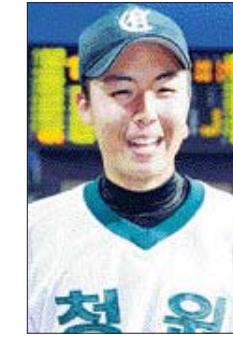
▲우승= 서울 청원고 ▲준우승= 경남 마산고 ▲3위= 광주일고, 서울 희문고 ▲최우수 선수상= 박상옥(청원고 투수) ▲우수투수상= 조근종(청원고) ▲타격 상= 손명기(10타수 5안타·타율 0.500·광

= 정성빈(마산고 투수) ▲미기상= 강원형(마산고 1루수) ▲수훈상= 구승민(청원고 3루수) ▲감독상= 최인수(청원고 감독) ▲지도상= 신성현(청원고 부장) ▲공로상= 김용우(청원고 교장) ▲심판상= 장윤창(광주시 야구협회) ▲故 최인식 선수상= 박상옥(청원고 투수) ▲감부상

‘내 볼은 아무도 못친다’는 자신감 주효

■ 최우수 선수

청원고 박상옥



이번 결승전 미운드에 오르기 전에는 부담감이 심했었다.

“너무 떨렸는데 속으로 ‘내 볼은 아무도 못 친다’고 외우면서 긴장

감을 풀었습니다. 1회부터 등번호를 짐수를 내주었고 수비도 잘해 주어서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2학년이지만 박상옥은 최고구속 142km의 직구를 잔착하고 절묘한 제구력으로 커브와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팀 내 원투펀치다. “생각지도 못한 완봉승 까지 거두게 돼 꿈만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대통령배 우승 주역으로 팀의 중진을 맡아야겠다는 기분입니다.”

과감하게 몸을 풀어 승부를 즐기는 박상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감독상

청원고 최인수



“새로 팀을 맡으면서 훅독하게 훈련을 했었는데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결승전에서 낙적 일고를 겪으면서 선수들 사기가 오른 것도 우승의 발판이 됐습니다.”

“광주일고를 완벽하게 막아낸 조근종과 결승전을 책임진 박상옥까지 미운드 전력이 한 수 위여서 여유롭게 결승전을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원고의 첫 경기였던 대구 상원고와의 연장 접전이 가장 힘들었다는 최인수 감독은 이후 선수들이 제 컨디션을 찾고 제 몫을 잘해줘 승리를 차지할 수 있었으며 선수들에게 우승의 기쁨을 돌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결승전 이모저모

2시간 前부터 양교 응원전

○결승전이 벌어진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양교 응원단이 3루(청원고)와 1루(마산고) 스탠드에 응원플래카드를 설치하면서 치열한 기싸움부터 시작.

청원고는 1·2학년 학생 40명, 교사 7명, 학부모 등 100여 명, 마산고는 1학년 학생과 사물놀이페 등 40명, 동문 45명, 인솔교사 5명과 학부모를 포함해 150여 명이 북과 팽과리를 치며 선수들을 응원.

지난 주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친데다 월요일 경기로 인해 야구장을 찾지 못한 청원고와 마산고 학생들은 각각 학교에 설치된 TV로 생중계를 보며 멀리서나마 모교 야구팀을 응원.

예상 밖 결승행 응원단 급조

○결승에서 격돌한 청원고와 마산고는 지난 15일 결승 진출 결과를 각 학교에 알렸으나 양교는 미처 예상치 못한 낭보에 응원단을 꾸리느라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

이번 대회에서 8강까지 4강을 목표로 한 청원고와 마산고는 지난 15일 준결승에서 각각 우승후보로 꼽히는 광주일고와 휘문고를 꺾고 결승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으나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기말고사 때문에 재학생들이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을 찾지 못해 아쉬움.

청원 최인수 감독에 아들 응원

○청원고 응원석인 3루 관중석에는 “자랑스런 아빠 힘내세요!”라는 이색 플래카드가 내걸려 눈길.

이 플래카드는 옛 광주상고(현 동성고) 출신인 최인수 청원고 감독 아들 최재현(광주 학강초등학교 6년) 군이 아빠의 무등기 야구대회 우승을 기원하면서 걸어놓은 것.

이날 최재현 군과 함께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을 찾은 학강초등학교 야구부원 21명은 3루 관중석에서 질서정연하게 청원고를 열렬히 응원.

마산·청원 결승 보도 큰 관심

○대회 기간 내내 모든 경기 결과와 스타 플레이어 등을 자세하게 보도해 감독과 선수들, 야구관계자에게 인기를 끌었던 '광주 일보'가 이날 결승에 오른 양교 선수들과 감독에게도 큰 관심.

이효근 마산고 감독은 "16일자 광주일보에 나온 자신의 사진과 기사를 보며 선수들이 이 너무 좋아했다"며 "오늘 경기에서도 꼭 우승해 우승 행거 사진을 광주일보에서 보자"고 결의했다는 것.

/최재현 기자 lion@kwangju.co.kr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